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5/12/15~2025/12/21]

2025.12.22

[로봇] 선구자의 몰락

- 아이로봇의 파산과 중국에 인수. 루미나르도 파산. 지브라도 AMR 사업 정리
- 뒤쳐졌다 평가에 충격 받은 일본, 국산 AI 개발 본격화 등 뒷심 발휘
- 빅웨이브로보틱스 코스닥 IPO 예심 청구서 제출. 27년 로봇 상장 확대 전망

[방산] 폴란드 1차 사업 마무리

- 수주 시동. 한화의 에스토니아 천무, 스웨덴 K-9, 미국 자주포/장약, LIG 말레이 천궁 등
- 방산 수출 성과에 목마른 정부. 2026년에도 정부 주도 수출 협조 힘 실릴 전망
- KF-21 블록 2 개발 시작. 대통령 지적에 장착 미사일 개발도 탄력 기대

[항공] 늘어나는 기재

-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신규 항공기 도입 속도. 이스타도 장거리 확장 추진
-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 12월 통합 목표. 이번엔 아시아나 PR이 서소문으로 이전
- 대한항공, 국기연과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연구. 무인기 사업 강화

[조선] 미국 차기 호위함 사업자로 HII 선정

- 현대삼호 컨선과 한화오션 LNGC 수주. NYK LNGC도 현대중공업이 수주 전망
- 미국 국방수권법은 의회 합의 과정서 '마스가 프로젝트' 조항 삭제
- 미국 신형 호위함 건조사로 헌팅턴 잉걸스 선정. 협력하는 현대중공업 수혜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선구자의 몰락

청소기 로봇의 선구자인 아이로봇이 파산 보호를 신청. 중국 로봇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서 끝내 패배. 중국의 저가 공세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가격 공세를 이겨낼 방법은 기술 뿐.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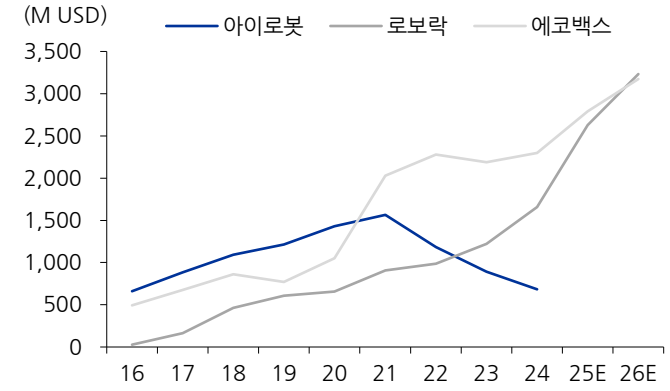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8)

[선구자의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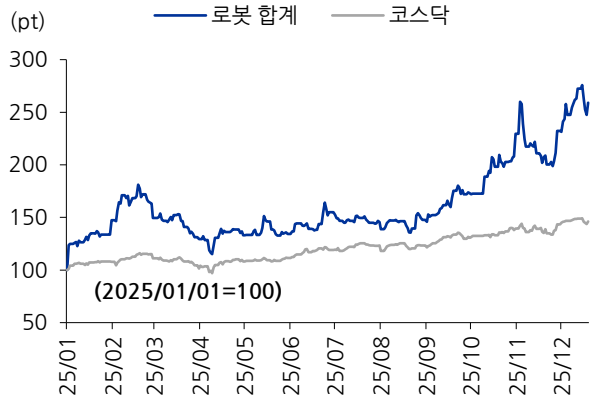
- 로봇청소기의 선구자, 아이로봇이 결국에는 파산보호를 신청. 청소기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실적 부진 속 재무구조가 악화된 영향.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피시아 로보틱스가 아이로봇 100% 인수를 추진 중인 상황. 같은 시기에 라이다 업체인 루미나르도 파산 보호를 신청. 볼보의 계약 해지가 직접적인 요인이기는 하나, 라이다 업계에서도 중국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저가 경쟁에 휘말렸기 때문으로 추정.
- 두 업체의 파산 신청은 많은 것을 시사. 중국 로봇 기업들의 저가 공세은 이미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감지되고 있음. 한국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를 추구할 수 밖에 없음.

Key Chart: 아이로봇과 중국 청소기 로봇 기업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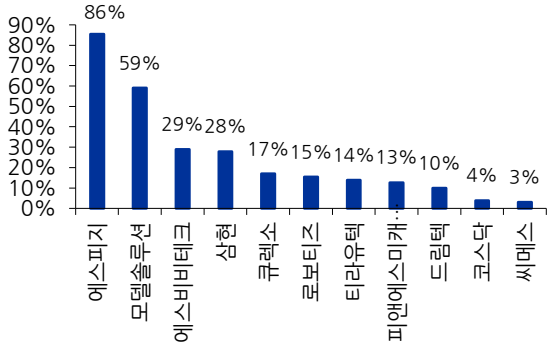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12/15~12/21)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HD현대중공업-현대로보틱스, 스마트조선소 구축 협력
- 로보티즈 5세대 실외자율주행로봇 내년 공개. 2천대 보급
- 로보티즈,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 200대 돌파

[휴머노이드]

- 국산 휴머노이드 '이그리스' 대학 연구실 공급

[부품/SW/기타]

- 빅웨이브로보틱스, 코스닥 상장 예심청구서 제출
- 하이젠알앤엠-KIST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협력 MOU
- 나우로보틱스, 300억 CB 발행 승인

[Global]

- 美 파운데이션, 27년까지 전투용 로봇 5만대 생산 계획
- 서브 로보틱스, 미국 내 가동 배달로봇 2,000대 넘겨
- 美 크로거, 오카도 기반 로봇 물류센터 3곳 폐쇄
- 아이로봇 CEO "中 경쟁사 인수는 불가피한 선택"
- 美 라이다 전문 기업 루미나르, 파산 선언
- BD '스팟' 주류 바카디 공장 투입. 생산 효율 개선
- UPS, '픽클 로봇' 하역 로봇 400대 도입 추진
- 美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AMR 사업부 정리 수순
- 中 갤봇 4000억원 투자 유치. 기업 가치 4조원 육박
- 中 CATL, 배터리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 中 메이디, 세탁기 생산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 日 민관 합동 3조엔 투자해 국산 AI 개발 추진
- 日 히타치, 전기제품 생산라인에 AI 휴머노이드 투입
- 싱가포르 샤르파로보틱스, 22 자유도 로봇손 양산 돌입

Weekly Keyword

폴란드 1차 사업 마무리

K-9과 K-2의 폴란드 1차 사업 마무리 후 2차 사업 돌입. 추가 개량 등으로 바로 인도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으나, 이 공백을 이집트 자주포, 중동 향 수출 등으로 메꾸는 중. 견조한 수출 흐름 지속.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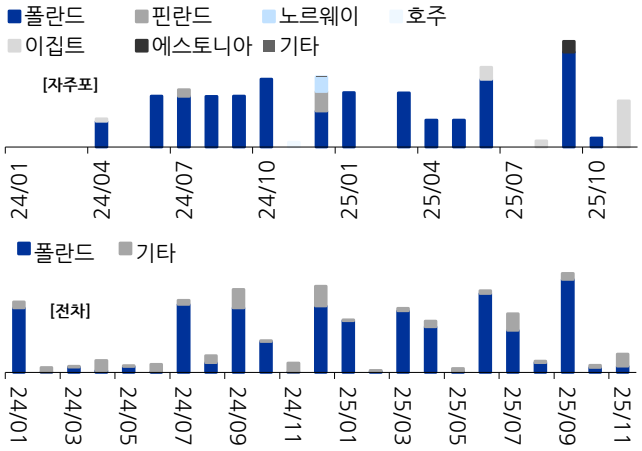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6)

[폴란드 1차 사업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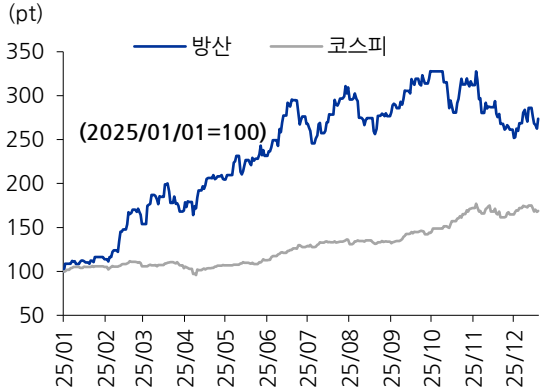
- 11월 방산 수출액은 견조했으나, 폴란드향 물량은 1차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공백기에 돌입. 폴란드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K-2 180대(1차 종료), K-9 212대(1차 종료), 천무 150대가 인도된 것으로 파악됨. K-2와 K-9은 모두 1차 종료 후 2차 사업 돌입. 2차는 추가 개량 등이 필요해, 인도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 그럼에도 이집트 K-9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사우디 등 중동 향 수출도 더해지면서 전체 수출액은 견조하며, 4분기 실적까지는 걱정이 없음. 4Q25 실적 발표에서 내년도 인도 물량에 대한 가이던스와 인도 시기에 대한 발표에 주목.

Key Chart: 자주포 및 전차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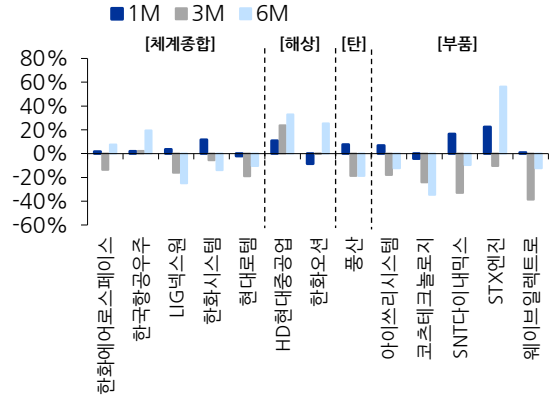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12/15~12/21)

[수주/계약]

- KAI-방사청, KF-21 추가무장시험 사업 계약 체결
- KAI 수리온, 해경 385억·국립공원 328억 계약
- 한화시스템, 보잉 F-15 항전장비 공급
- 한화시스템, 천궁-Ⅲ 2천억 규모 레이다 개발 착수
-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천무 3년간 5천억원 수출
- 스웨덴, 한화 K9 자주포 40문 도입 검토
- LIG넥스원 천궁, 말레이시아 방공망 구축사업 수주 가시권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에 K9 자주포 212문 완납
- 한화, '10억 달러 투자' 美 155mm 포탄 공장 설립 추진
- 현대로템, 폴란드 K2 후속 현지화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타]

- 26년 李대통령 순방 더 많아진다. 방산 수출 성과 집중
- 방사청 "2030년까지 'K-방산' 200억 달러 수출 목표"
- 방사청장, "처로 승격 후 총리실 산하로 조직 개편" 건의
- 李 대통령, '공대공 미사일은 왜 개발 안했나" 질타
- 김동관 한화 부회장·UAE 산업장관 방산·조선 협력 논의
- 요격 드론 기업 니어스랩, 기술성 평가 'A·A' 획득

[글로벌]

- 美 장포신 기술을 K-9 자주포에 얹어 다시 시험·검증 추진
- 美 해군 UJTS 도입 규모 216기. RFP는 내년 2월로
- 트럼프, 방산업체에 "배당 줄이고 무기 개발" 행정명령 검토
- 보잉·안두릴, 美 육군 신형 요격기 공동개발 협력
- 튀르키예, 러시아에 'S-400' 반환 타진. 美 F-35 도입 포석

Weekly Keyword

늘어나는 기재

2025년 국내 항공사의 기단 규모는 전년비 25대 증가. 2024년 22대 증가보다 더 늘어남. FSC는 순증 0대. LCC에서만 25대가 증가하면서 기단 규모 경쟁 심화. 단거리에서 장거리 진출 시도도.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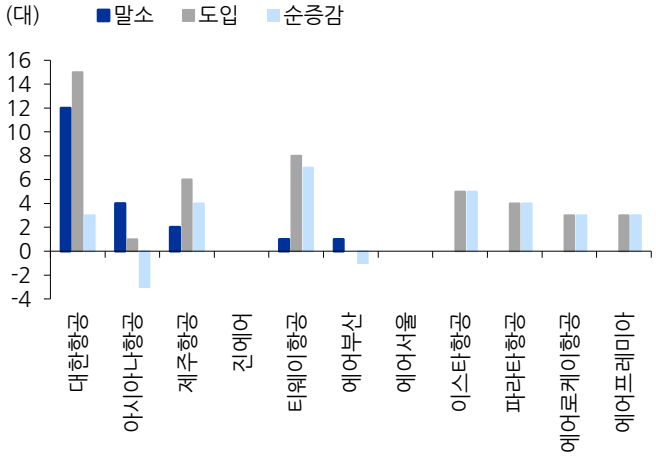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6)

[늘어나는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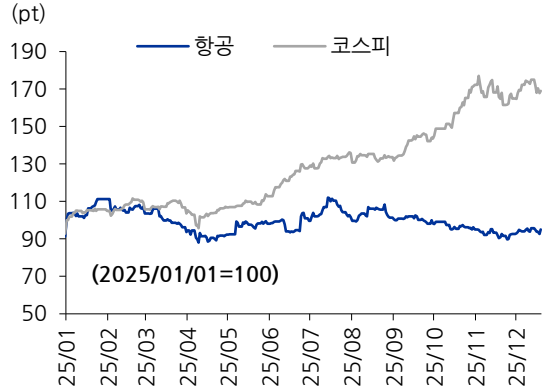
- 2025년 국내 항공사의 기단 규모는 전년비 25대 증가(24년 22대 증가). 티웨이항공 +7대, 이스타항공 +5대, 제주항공 +4대, 파라타항공 +4대, 대한항공 +3대, 에어프레미아 +3대, 에어로케이 +3대 등.
- FS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치면 순증 0대, LCC에서만 25대 증가하며 국내 LCC의 기단 확대가 두드러짐. LCC의 단거리 공급 과잉 우려 속, 티웨이항공 및 에어프레미아 외, 파라타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장거리 노선 진출을 추진 중.

Key Chart: 국내 항공사 25년 항공기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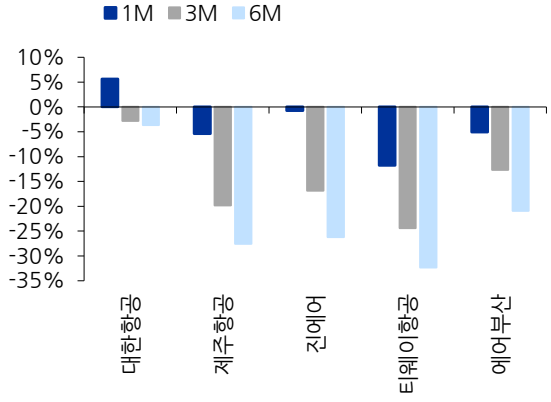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12/15~12/21)

[여객/화물]

- '부산 갈 필요없다' 제주~후쿠오카 6년만에 비행
- 아시아나항공 수요 부진에 결국 세부 노선 단항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국기연와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연구
- 아시아나항공, 내달 14일 인천공항 T1→T2로 이전
- 아시아나 PR팀, 서소문 사옥으로. 대한항공 통합 속도
- 이스타, 20번째 항공기 도입. 기단 절반이 신규 기체
- 이스타, 2027년 B787 도입 추진. 美호주 취항 검토
- 에어프레미아, 9호기 도입. 중·장거리 운항 안정성 강화
- 에어로케이, 청주~日기타큐슈 노선에 SAF 공급
- 파라타항공, 국제선 운항 첫달 '탑승률 67.2%'
- 파라타항공, 비즈니스 스마트 도입 프리미엄 전략 강화
- 소형항공사 섬에어, 내년 1월 ATR72 1호기 도입
- 세아항공방산소재, 보잉에 항공용 알루미늄 공급

[기타]

- 환율이 장중 1480원대까지. 1500원대 넘기나
- 조원태 회장, 보수 4년 새 3배 급증. 지배력 방어위함인가

[글로벌]

- 스피릿항공, 프론티어와 합병 논의 중
- 中 최초 여객기 C909 누적 수송객 3000만 돌파
- 중국 "일본 가지 말라" 신호에도 '고재팬'
- '짧은 여행'이 새로운 해외여행 트렌드로 주목

Weekly Keyword

미국 차기 호위함 사업자로 HII 선정

미국의 차기 호위함 사업자로 HII가 선정됨. HII는 해외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 중. HD현대중공업과도 MOA 체결한 바 있음.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협업 가능성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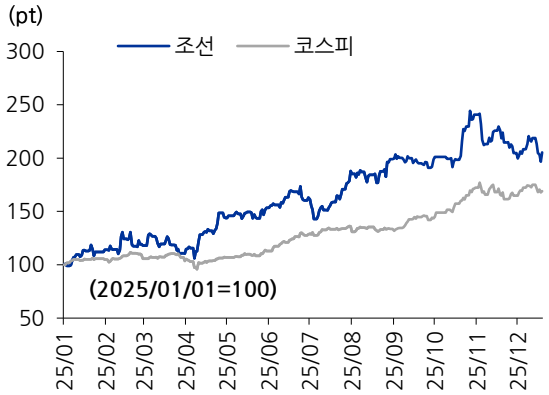
[미국 차기 호위함 사업자로 HII 선정]

- 미국은 지난 11월 차기 호위함(FFX) 사업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계획을 취소. 동 사업은 총 20척 건조를 목표로, 핀칸티에리가 FREMM급을 기반으로 초도 6척을 건조 중이었음.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에 따라 미 해군은 이미 건조 중인 2척을 제외한 4척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롭게 차기 호위함 사업을 추진.
- 이번에는 헌팅턴 잉걸스(HII)의 레전드급 순찰함을 기반으로 건조할 계획을 공개. 세부 규모는 미정이나 초도함은 2028년에 진수될 예정. 동 함은 이미 미 해안경비대에서 10척이 운용 중으로, 설계 및 건조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 초기 건조는 HII의 잉걸스 조선소에서 수행 예정이며, 이후에는 타 조선소와 경쟁 입찰 예정.
- 잉걸스 조선소는 현재 DDG와 LHA, LPD의 세 함종을 건조 중이며,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 내 추가 조선소 건설 검토를 포함한 역량 확대 방안을 모색 중. 미 해군도 비전투함/전투함 부품 제작에 해외 조선사 활용을 염두 중. HII는 HD현대중공업과도 MOA를 체결하고, 미국 차기 군수지원함 사업 입찰에서 협력 중.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협업 가능성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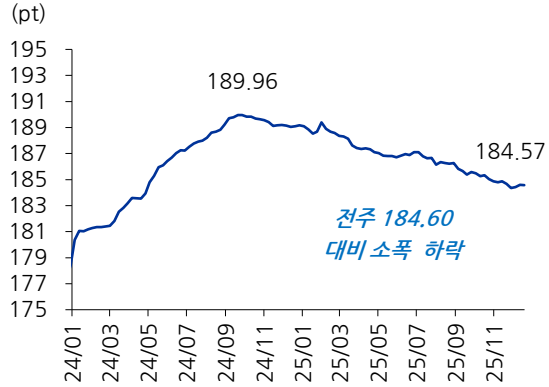
Key Chart: 차기 호위함 렌더링 이미지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2/15~12/21)

[상선/해양]

- HD현대삼호, 6,896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4척 수주
- Knutsen, 한화오션에 2.6조원 규모 LNGC 7척 발주
- HD현대중공업, 日 NYK와 2.8조원 규모 LNGC LOI 체결
- 싱가포르 PIL, 컨선 8척 발주 추진. 한국·중국 수주경쟁
- 삼성중공업, HSG성동조선과 원유운반선 2척 건조 계약

[특수선]

- HD현대重·페루 국영조선소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체결
- 美 국방수권법서 '韓 조선사 우대 조항' 빠졌다
- HJ중공업,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첫 계약 체결
- KDDX 22일 방추위 결정. 대통령 발언에 '복수낙찰제' 부상
- 한미, 내년 '핵잠·우라늄·재처리' 3대 핵 협력 동시 착수
- 美 스테이트스트리트, 한화가 품은 오스탈에 '베팅'

[기타]

- 카사블랑카 조선소, 한화·삼성重도 운영권 입찰 참여
- 한화엔진, 노르웨이 SEAM 지분 100% 인수
- 세진중공업, 베트남에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

[글로벌]

- 中 국가조선소, 71억 달러 메가딜로 '역대 최대 수주'
- 美 황금함대 新 호위함 발주 "외국 조선소 활용도 논의"
- 미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 조선사로 헌팅턴잉걸스 선정
- 英 밥콕, 美 핵잠수함 공급망 진입. 캐나다 수주 '청신호'
- 美, 푸틴이 우크라 종전안 거부하면 그림자선단 제재 고려
- 獨 TKMS, 캐나다서 '잠수함 선체' 직접 만든다
- TKMS, 인도 국영 조선소와 잠수함 6조 건조 추진